

“의무자조금 통해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입지 다질 것”



최 현 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

“임의자조금 5년만에 육우 의무자조금의 출범을 이끌어낸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국내 육우가 양돈, 한우, 낙농, 양계산업처럼 하나의 육우산업으로 인정받고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범한 육우 의무자조금의 수장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을 만나 육우자조금의 향후 방향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임의자조금 5년 만에 육우의무자조금이 출범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 그동안 많은 육우농가들이 임의자조금에 참여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무임승차 농가들, 재정상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무자조금을 준비하면서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육우농장을 전문으로 경영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낙농과 육우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다보니 제대로 운영 중인 육우 지부가 별로 없고, 전국을 돌면서 농가의견을 수렴하려 해도 농가들을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임의자조금을 통해서 소비홍보와 농가교육을 실시해왔으나, 둘 다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무자조금이 시행되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육우자조금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은?

- 육우고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소비홍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간접광고(PPL)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육우고기 요리교실을 개최하며, 육우데이 행사도 기존보다 더욱 다채롭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역축제현장에서 개최되는 육우고기 시식회의 경우 서울이나 안성이 아닌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시식회를 열어, 육우자조금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농가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지부가 없는 곳

에서는 자연스럽게 육우 지부가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육우가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작년부터 준비해온 육우온라인판매사이트를 오는 3월경 오픈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육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육우전문식당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배포해 육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영양사협회와 공동사업으로 단체급식소에 육우레시피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단체들과 연계해 육우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업규모가 타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의무자조금은 양돈(2004년), 한우(2005년), 낙농(2006년), 육계(2009년), 산란계(2009년), 오리(2013년) 등 6개 축종에 도입되었고 육우는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듯, 차분히 사업을 추진해 적은 사업비지만 최고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육우고기가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그리고 국내 쇠고기 소비시장에서 분명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우농가와 정부 등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육우산업 모두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육우의 경우는 기본적인 사육기반마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우산업은 버릴 수 없는 산업이기에 정부가 축산업의 한 분야로 육우산업을 인정해주고 우리 농가들이 육우를 안정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량이 40%대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육우가 국민 쇠고기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육우농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육우농가 여러분들께는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내 육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육우의무자조금을 통해 하나가 되어 육우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